

천/국/열/쇠 시리즈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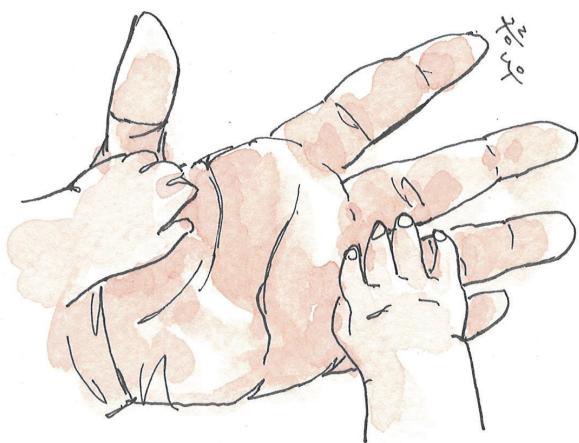
예수님이 주시는

천 국 열 쇠

구름나무 지음



새 빛의 소리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편 56:3) ♥

목 차

추천사	006
1장 인간은 왜 태어났는가?	009
2장 누구를 구원하는가?	043
3장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071
4장 어떻게 구원받는가?	089
5장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123
6장 언제 구원받는가?	147
7장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181
작가의 말	210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골로새서 3:1-3)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취가 풍겨납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며 성령이 그에게 임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입술에서는 하늘의 것만 흘러나옵니다. 그는 화목직책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이 땅에 하늘의 비밀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아가 죽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교절의 누룩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양식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제 삼일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초실절 첫 이삭 한 단의 생명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러한 자가 되면 그는 요셉이 되고 노아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너와 네 집을 구원하시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열쇠의 저자 ‘구름나무’님은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함으로 이 책을 쓰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늦은비로 내리는 성령의 역사는 이른비보다 칠 배나 강하여 오로지 위의 것만을 찾게 하시고 땅의 것은 전혀 생각을 두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시대의 긴박함과 마지막 추

수를 앞두고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운행하시는지를
이 책을 통해 새 빛의 소리 편집부는 저자와 함께 독자들
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정말 자다가 깰 때이며,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
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엡5:14)는 말씀이 응할
때입니다.

이 책을 통해 잠자던 많은 자가 깨어나기 바라며, 읽는
자들의 심령에는 생명수가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2021. 9. 14.

김 창 배

1장

인간은 왜 태어났는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1장 인간은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반드시 육체가 죽어야 하며, 그 후 영과 혼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인간이 육체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재료가 필요하므로 이 땅과 하늘이 창조되었고, 또한 그보다 육신 안에 들어갈 영과 혼의 생명이 먼저 지어져야 했습니다(창1:1-10). 우리에게 보이는 모든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히11:3).

하나님께서서는 이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만들 때 비밀을 숨겨두셨고, 또 인간을 이 땅에 두시면서도 그 속에 비밀을 감춰두셨습니다. 이것을 풀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

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천지창조의 비밀
과 인간이 왜 태어나서 사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에는 ‘인간은 왜 태어났는가?’라는 질문을 가
지고 답을 밝혀 보겠습니다.

천지창조의 비밀

먼저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알아야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며, 그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6:39-40)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 주신 영과 혼의 생명

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에 부활 생명으로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밝히신 바 아버지의 뜻은 영과 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과 혼의 생명을 살리는 것 이외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은 영과 혼을 살려 내기 위해서 어떻게 구속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든 것을 한 방향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말씀을 비밀로 감춰두셔서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골1:26, 엡3:9). 그것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펼쳐서 처음 나오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1:1-2)

모든 말씀을 읽을 때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결국 그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1절에 말씀하시는 태초는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그

뜻을 드러내는 어느 시점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천지라 함은 보이지 않는 세상 즉 영적 세계의 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분이시므로 영적 세계를 먼저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은 성경책 속에서 말씀으로 그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로서 처음과 끝이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상의 생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책 속에 나오는 영적 세계의 생명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 계시며, 천사들이 있고, 또한 천사들의 수장인 다섯 그룹 천사장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한 천사장은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으며, 그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인 마귀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영적 세계의 생명이 다양해 보이지만 그 근원은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이 영적 세계의 피조물 중에 사람을 만들 혼의 생명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혼이 살아났음을 증거했기 때
문입니다(창2:7). 이것은 이미 영적 세계에서 피조물인
천사들 외에 혼의 생명이 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에덴동산에서 아담이 각종 들짐승과 공
중의 각종 새의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자가 뱀이라고 하였으므로(창3:1), 에덴동
산 안의 들짐승과 각종 새는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
다(창2:18-20).

그러므로 영적 세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으로 존재하시고(요4:24), 피조물로 혼의 생명(산영)
과 영물인 천사(섬기는 영)를 창조하신 것이었습니다(히
1:14).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창조가 영적 세계의 창조임을 증
거하는 말씀이 바로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1:2)

여기서 ‘땅이 혼돈하고’라고 했는데 혼돈은 킹제임스

영어성경에 ‘without fo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형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세계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허하다고 했는데 이는 void 즉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가 형성되기 이전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아서 비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비어 있다는 말씀일까요? 이 질문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 장면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24장로가 앉은 24 보좌가 나옵니다.

“또 보좌에 둘러 이십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사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계4:4)

이와 같이 처음 하늘에서 비어 있다는 말씀은 이 24보좌가 비어 있다는 말씀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24 보좌가 채워진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복음서의 여러 말씀에서 24보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편과 좌편으로 나눠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

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마20:23)

또한 다음 말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12보좌씩 나눠짐을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마19:28)

이렇게 좌우편에 앉을 12보좌는 구원받을 충분한 수를 의미하고 있으며, 이 말씀은 천국열쇠입니다. 이 책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천국열쇠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에 흑암이라니요? 왜 흑암이 존재할까요? 이것은 이미 영적 세계의 생명들 중에서 죄를 지은 어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책 속에는 죄지은 자를 어둠으로 표현하니까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는 킹제임스 영어 성경으로 ‘darkness was upon the face of the deep’입니다. 즉 흑암이 깊은 바닥에 수장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말

씀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되어 있음으로 흑암은 깊은 물 바닥에 결박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이는 타락한 세력이 혼의 생명을 미혹하여 흑암에 결박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를 유다서 1장 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유1:6)

물은 생명수를 말하며, 이는 하나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시대의 율법과 신약시대의 복음 이 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수를 주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구속사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니라”의 말씀을 묵상하면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롬1:17)라고 하신 것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요6:63)라고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며,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낮과 밤은 이 땅의 낮과 밤이 아니라 영적 세계의 빛과 어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물질 세계가 둘째 날부터 창조됩니다.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고 물과 물로 나누라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지구 땅인 첫째 하늘과 우주 공간인 둘째 하늘과 하나님 나라인 셋째 하늘로 나누어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셋째 하늘이라고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물을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라 하셨으므로 둘째 하늘인 우주 공간에는 물이 없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창1:6-8). 그러면 하나님께서 흑암의 생명들은 과연 어디에 두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물이 없는 곳 즉 하나님 말씀이 거하지 않는 곳인 둘째 하늘, 우주 공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사탄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다음 놀라운 말씀들을 보십시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엡2:2)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계12:9)

자, 명심하십시오.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은 물이 없는 곳 즉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에 거하며 우리를 항상 어둠 속에 가두려 미혹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뚜렷이 증거하고 있습니다(눅11:24-26).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왜 흑암에다가 세상을 가두어 놓으셨을까요? 왜 흑암의 세력인 사탄에게 권세를 주셔서 인간을 그들에게 던져두었을까요?

다음 세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1:13)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롬11:32)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마4:16)

이처럼 모든 사람을 흑암 세력에게 가두셔서 죄인 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구원의 비밀입니다. 어둠이 가득해야만 진리의 빛을 볼 수 있으며, 오직 그 진리의 빛만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둠이 없으면 영과 혼의 생명을 깨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의 세력도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나누시는 이유도 영과 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늘은 heaven으로 단수 하늘이며, 2장에 나오는 하늘은 heavens로 복수의 하늘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 요한계시록 21장의 하

늘은 또 다시 heaven으로, 단수 하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로 나누어진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단수 하늘 즉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된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영과 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림과 재림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성경의 주제입니다.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구원주 메시아로 올 것을 예언하였으며, 실제로 신약시대에 예수님은 오셔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다시 재림하여 심판과 구원을 이루겠다고 언약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롭고 산 길인 구원의 길을 친히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에 분명히 믿게 하시려고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신령한 몸을 입고 가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눅24:39)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의 연합을 증거하며 오실 때도 같은 모습으로 오신다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다음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십시오.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맞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22:1-2)

이 말씀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의 잎사귀가 생명나무로 연합되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됨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구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생명을 넣어 육체 속에 두시고, 인간의 구속사를 시작하셨고, 지금까지 인류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까지 모든 길을 성경책을 통하여

밝혀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라는 질문의 답은 먼저는 천지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과 혼의 생명을 예수님과 같이 부활 생명으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즉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연합한,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입니다.